종이와 국감, 그리고 약속에 대하여



서 선 미의 기후에세이

까치발을 든다. 담 너머 국회 안을 바라본다. 종잡을 수 없는 일들이 국회 안을 서성인다. 국정감사가 그렇다. 국정감사는 국회의 시간이 가장 환하게 드러나는 시간이다. 막은 내리고 불은 꺼졌다.

국정감사를 복기하다 문득 종이를 떠올렸다. 감사 대상인 정부는 두꺼운 업무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어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실마다 여러 권씩 제출한다.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회의 때마다 질의서를 출력해 검토하고, 행정실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운영자료를 인쇄한다. 국회의원 명패가 세워진 책상 위에는 관련 서류들이 쌓여 있다. 예나 지금이나 국정감사장에는 종이가 산적해 있다.

국회가 종이 없는 국감을 본격적으로 말한 때는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원욱 의원은 ICT 발전을 이끌어야 할 위원회의 특성을 강조하며 종이 없는 국감을 추진했다. 피감기관의 업무보고서 등을 전자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의원들은 개인 좌석의 PC로 문서 열람이 가능했다. 당시 과방위는 A4용지 기준 최소 200㎏ 이상의 종이 인쇄물을 줄였다. 같은 해 이소영 의원을 비롯한 여야 초선의원 50명도 종이 없는 국감을 제안하며 국회 차원의 자원 낭비 개선을 촉구했다.

2020년의 제안은 2024년 다시 실천으로 이어졌다. 22대 국회는 호기롭게 종이 없는 국감을 천명했다. 2024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며 '종이 없는 국감'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자료 배부 방식을 전자화하는 방향이었다. 국감을 마친 뒤 국회는 16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2170만5611쪽의 자료를 전자 형태로만 배부했고, 이를 통해 A4 복사용지 구매예산 1억 2000여만 원을 아꼈다고 밝혔다.

같은 해 여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시도도 있었다. 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종이 없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회의와 보고에 필요한 자료에 전자문서를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국회의장에게도 종이문서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종이 없는 국감에서 종이 없는 국회로의 확장이다.

해마다 국정감사 기간에 쓰였던 종이 인쇄물들은 국감이 끝나면 파쇄실로 가거나 쓰레기장으로 향한다. 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국감 기간에만 쓰이는 종이 인쇄물 제작 비용이 매년 약 4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2024년 8월 9일 발의된 이 법안은 같은 해 9월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된 뒤 2년여가 지난 지금도 계류된 채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 스스로의 살림을 다루는 곳이다. 자기 집 종이를 줄이는 일조차 2년째 멈춰 서 있는 셈이다.

다시 올해로 돌아온다. 국감을 앞둔 시기에도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종이 없는 국감에 대한 그 어떤 말도 들려오지 않았다.

새벽 어스름을 지나 저녁노을에 이른 지구를 우려한다. 지구 정주자라면 누구나 그러할 것이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를 바라보고 국회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이유다. '기후위기'를 앵무새처럼 말하면서도 좀처럼 그 진의를 알 수 없는 정치인들은 셀 수 없이 많다. 종이 없는 국감을 자랑스럽게 국민에게 알렸던 국감의 원칙조차 쉽게 잊은 그들이다.

국회의 지금 마음은 첫 마음과 같을까? 자신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종이를 그들 손에 쥐어준 이들은 누구인가. 국민이다. 종이를 얻기 위해 베어낸 숲의 대가를 치르는 이도 역시 국민이다. 국회의원들은 그 고통에 잠시나마 곁을 내어주겠다고 국민에게 달디단 소리를 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빈번히 사용하는 '종이'를 응시하고, 두 해 전의 약속도, 그 약속을 지켜 얻어낸 칭찬도 다시 불러 세워 주길 원한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정책전문위원

나를 아는 AI, 서로를 모르는 사회



기자 수첩 김 보 민 〈IT부〉

인공지능(AI)에 대한 소식은 하루가 다르게 넘쳐난다. AI는 사람과 사람을 잇기보다 개인에게 맞춰주는 기술이다. 서울AI재단이 지난 4월 발표한 '2025년 서울시민 디지털역량실태조사'에서 생성형 AI 활용 목적은 '정보검색'(92.2%)이 가장 많았고, '일상대화'를 꼽은 비율도 65.2%로 2023년보다 42.9%포인트 늘었다.

AI 이용 격차는 사용 여부를 넘어 활용량에서도 나타난다. 오픈AI의 기업 고객 분석에서도 올해 6월 활용량 상위 10% 기업과 중간 수준 기업의 이용자당 AI 출력량은 8.3배 차이가 났다.

AI 이전의 삶을 오래 살아온 개인에게는 이미 일상이 있다. 사람이 살아오던 관성과 사고방식을 바꾸기는 어렵다. 연령대에 따라 AI를 써본 경험부터 차이가 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5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 고령층의 AI 서비스 경험률은 30.2%로 일반 국민(59.4%)의 절반 수준이었다. 앞의 서울시민 조사에서 'AI 시대에 준비돼 있다'고 답한 비율은 55세 미만이 65.0%, 55세 이상은 19.6%였다. AI 확산에 '우려가 크다'는 응답도 55세 이상(30.1%)이 55세 미만(9.3%)의 3배를 넘었다. AI는 정보 격차를 줄일 수도 있지만 더 벌릴 수도 있다.

AI는 정보를 접하는 방식도 바꾸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6'에 따르면 AI 챗봇으로 매주 뉴스를 본다는 한국 응답자는 14%로 1년 새 두 배가 됐다. 세계 평균(10%)보다 4%포인트 높다. 범용 AI와 포털 AI가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정보가 도는 알고리즘의 순환 속으로 들어왔다. 관심을 가지지 않는 소식은 더욱 알아가기 어려워졌다.

연결의 시대라고 하지만, 개인화된 정보는 개인과 개인 간의 분리를 키울 수 있다. 플랫폼에서 같은 콘텐츠를 함께 소비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생각이 일률화되기도, 고립되기도 쉬워진다. AI가 정보를 골라 보여주는 구조에서는 정보 통제가 더 쉬워질 수 있다. 담론의 지배와 정보 유출도 마찬가지다.

AI가 이끄는 사회 변화는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그럴수록 연대의 필요성을 묻게 된다. 그 답은 AI가 줄 수 없다.

/kbm@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3일 (음 9월 24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쥐 **48년생** 마음에 중심이 없고 흔들림이 많은 날입니다. **60년생** 안정을 취하세요. **72년생** 심장과 소화기에 병이 들 수 있습니다. **84년생** 일을 추진하기 앞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소 **49년생** 매매는 이루어지나 생각만큼 큰 이익은 없겠습니다. **61년생** 타인의 재물에 욕심부리지 마세요. **73년생** 지나친 신경은 건강을 해칩니다. **85년생** 흐름에 맞춰 순리대로 진행하세요.

호랑이 **50년생** 심기가 편치 못합니다. **62년생** 내일을 기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74년생** 일찍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보내세요. **86년생** 미래를 미리 대비하여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토끼 **51년생** 서쪽이 길한 방향입니다. **63년생** 냉철한 이성으로 오늘을 이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75년생** 사업의 확장이나 투자는 금물입니다. **87년생** 상대가 양보하지 않습니다.

용 **52년생** 중요한 협상은 내일로 미루세요. **64년생** 예상하지 못한 자녀 문제로 고민이 깊어지게 됩니다. **76년생** 자기 발전을 위해 매진하세요. **88년생** 보기 좋은 감이 맛도 좋다고 했습니다.

뱀 **53년생**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부딪혀 보세요. **65년생** 강직하게 밀고 나가세요. **77년생** 주머니가 배로 늘어납니다. **89년생**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소속된 집단에서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말 **54년생** 만족할만한 결과로 일이 마무리됩니다. **66년생** 노력을 닦은 결실이 맺어집니다. **78년생** 자신 있는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90년생** 고난은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으니 인내하세요.

양 **55년생** 노력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67년생** 육신이 고달프니 이 내 몸이 외롭습니다. **79년생** 매매는 미루고 소송은 당기세요. **91년생**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마세요.

원숭이 **56년생** 노력하지 않으면 하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68년생** 인간사 매사 튼튼히 노력하며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80년생** 분주하고 소득이 없습니다. **92년생** 금전운이 열립니다.

닭 **57년생** 결과에 연연하니 실력 발휘가 안 됩니다. **69년생** 과감한 변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81년생**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93년생**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스스로를 혁신하세요.

개 **58년생** 귀인이 도와 해결됩니다. **70년생**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마세요. **82년생** 가족과 우정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94년생** 뛰어난 재능이 있으니 늦게라도 원하는 바는 이루어집니다.

돼지 **59년생** 귀하를 돕는 큰 업체와의 계약이 성사됩니다. **71년생** 지금 하는 일을 유지해야 합니다. **83년생** 원하는 것 중 작은 것은 이루어집니다. **95년생** 지금은 조금 이른 시기입니다.



김상회의 四季

10월의 기도

해와 달과 별로 대변되던 천지자연은 우주의 관점에서 보자면 매우 협소한 곳이다. 요즘 유튜브에 소개되는 우주의 광활함을 보여주는 쇼츠를 보자면 우리 인간들은 아주 미소한 먼지에 끼지도 못한다. 생물의 존재를 미시적으로 보자면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이 득시글하며 거시적으로 보자면 저 하늘 너머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선조들 처지에서는 북극성이 최대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허블망원경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발전된 성능으로 제임스 웹 망원경까지 탄생하여 우주의 끝은 그 한계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주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무한세계인 것이다. 우리 태양계를 품고 있는 우주 외에도 그 끝과 수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우주는 인간의 상상도 허락하지 않을 정도다.

우리 인류는 특히 우리 선조들은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우주의 기운을 통찰해 내었다. 아주 오랜 옛적부터 쌓여온 경험과 직관이 만들어 낸 결과물인 것이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미신으로 치부되는 경우도 많지만 해와 달의 위치와 별자리의 움직임이 인간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인정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하나 태어나서 평균 100세의 수명을 가진 인간들이 해와 달과 별자리의 운행 안에서 인간은 겸손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 송나라 때 소강절은 우주의 나이를 계산해 내었다. 물론 현대 천문학에서 가늠하고 있는 우주의 범위와 연대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육안으로 관찰한 것을 생각한다면 대단한 일이고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우주 자기장의 범위를 염두에 둔다면 선생의 우주 나이 계산은 실질적 의미가 깊다. 서두가 길었다. 누가 뭐래도 10월은 상달이다. 선조들은 이때에는 하늘 문이 열린다고 했다. 기복이 되었더라도 피흉취길을 바라며 기도를 해야 하는 때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한 힘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4	2	6					8
			7		8		3	
		6		9		4		
2		8	4			9		
		3			6	5		4
		5		6		1		
	2		8		7			
8					9	6	4	

		8			2	6		
		5	9	4				
3					8		2	4
4		1					5	
	8						7	
	6					1		2
6	2		3					7
				9	7	2		
		7	2			8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26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30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